

광주 동구 '쓰레기줄이기 100일 실험단' 2기 출범

1인·청년 가구 등 100가구 참여 지난 6일부터 100일간 실천 성과 시민 참여 프로그램 제안

코로나19로 재활용쓰레기 급증 등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행동을 실천하도록 하는 '쓰레기 줄이기 100일 도전! 생활 실험' 2기가 시작됐다.

쓰레기 문제를 비롯, 기후·환경 문제 대응에 시민들의 주도적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이들의 자발적 움직임에 지역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시 동구와 (사)광주시민환경연구소는 지난 5일 동구청 6층 대회의실에서 실험단 참가자, 동구 자원해설사 등 100여명이 참여해 '동구 쓰레기 줄이기 100일 생활실험단' 발대식을 열었다고 9일 밝혔다.

동구는 지난해 8월에 산수2동 주민 100가구를 대상으로 쓰레기 줄이기 100일 도전을 진행할 결과 참가자 1인당 하루 평균 배출량 26.9%를 감량하는 성과를 보였다.

처음으로 실행한 쓰레기줄이기 100일간의 생활 실험은 동구 산수2동에 거주하는 100가구 주민들이 100일 동안 쓰레기를 줄이는 활동을 실천하면서 매일 쏟아지는 쓰레기 배출량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줄여보자는 게 기획 의도였다.

실험결과 추석 명절, 김장철 등 시기적으로 쓰레기 발생량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감량 성과가 매우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는 참여 범위를 동구 전제로 확대했다. 1인 가구, 청년 가구 등을 포함 쓰레기·환경·기후 위기 등에 관심이 많은 100가구를 모집해 지난 6일부터 본격적인 100일 생활실험에 돌입



광주시 동구 주민 100명이 참여하는 '쓰레기 줄이기 100일 도전! 생활실험' 2기 발대식이 지난 5일 광주 동구청 6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광주시 동구 제공>

한 것이다. 참여 가구는 (사)광주시민환경연구소로부터 받은 저울, 제로웨이스트 생활 물품을 활용해 일반쓰레기와 재활용쓰레기 배출량을 구분·측정하고 매일 세 차례에 걸쳐 실험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참여한 주민들은 쓰레기를 배출할 때 마다 발생량의 무게를 잔 뒤 그때그때 적어놓는 방식으로 배출량을 파악한다. 쓰레기 종류도 종량제 봉투에 배출하는 일반쓰레기와 분리 배출이 가능한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로 나눠 측정할 예정이다.

쓰레기 생활실험단은 오는 21일까지는 평소와 다른 쓰레기 배출량을 기록하고, 21일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쓰레기 줄이기'에 나서 감축량을 항목별로 기록할 예정이다.

쓰레기 생활실험단이 실천한 결과들을 쓰레기 성상(종류), 실천 방법, 가구 형태 등 세부적으로 분석해 쓰레기 감량 정책과 시민실천 방법으로 제

안할 예정이다. 쓰레기 생활실험단은 일상속에서 쓰레기 감량 과정을 온라인에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함께 실천하는 미션 수행, 짝꿍 만남 활동,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이다.

실험단은 35세이하 청년가구(13가구)부터 40대~70대까지 참여했고, 원룸, 단독주택, 다가구, 1인가구~4인가구까지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됐다.

참여단에는 크게 5가지 분야로 나뉘는 쓰레기 줄이기 20가지 실천과제와 100가지 실천방안이 제시됐다.

장바구니 사용하기, 포장재(세탁소비닐, 코팅소프백 등) 놓고 오기, 배달음식점 주문시 일회용품 거절하기, 대나무 칫솔과 천연치약 쓰기, 남은 음식 음식점에서 포장해오기, 손수건 챙기기, 다화용기 들고가 음식 주문하기 등의 실천 전략이 포함됐다.

광주시민환경연구소는 대표적 10대 실천방안으로 ▲쓰레기 없는 초록생활 다잡하기 ▲친환경 제품 잘 고르기(착한소비 녹색구매) ▲아웃گری 공유경제 활성화 ▲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쓰기 ▲일회용품 안쓰기 ▲플라스틱 줄이기 ▲음식물 남기지 않기 ▲지구를 살리는 나의 물건 3종세트(손수건, 텀블러, 장바구니) 사용 ▲종이사용을 줄이는 스마트한 생활 ▲재활용품 분류배출, 폐기물 분리수거 ▲버리지 말고 나부터 쓰레기 줄기 등을 제안했다.

임택 동구청장은 "지난해 산수2동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좋은 성과를 거둬 올해는 동구 전 주민으로 확대해 쓰레기 줄이기 생활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쓰레기 줄이기, 분리배출 준수 등 주민들의 자발적인 일상 속 작은 실천들이 자원순환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 남구, 초등생 대상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실시

광주시 남구가 아동용 대상으로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건강증진 플랫폼인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실시한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주관하는 시범 사업으로, 혈압·중성지방 등 건강위험 요인을 가진 시민들의 건강을 첨단 기기를 이용해 체크하고 건강 위험요인을 없애는 사업이다.

광주시 남구 장산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앱과 손목에 차는 웨어러블(wearable) 활동량계를 이용해 건강 상태를 체크할 계획이다.

학생들은 2023년 1월까지 6개월여 동안 ICT 기반 비대면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매주 월요일 남구가 발송하는 건강 정보를 활용해 올바른 건강관리 습관도 학습할 계획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저출생 대응 아이디어 공모

광주시 북구

광주시 북구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에 나선다.

북구는 오는 9월 7일까지 '2022 저출생 대응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모분야는 ▲저출생 대응 시책 ▲저출생 슬로건 ▲UCC 등으로 저출생 인식 제고, 임신·출산·양육 관련 제도 개선, 돌봄 등의 아이디어를 제시하면 된다.

북구는 10월 중 당선작을 발표하고 구정장 표창과 함께 최우수상(1명) 50만 원, 우수상(2명) 각 30만 원, 장려상(2명) 각 20만 원을 시상할 예정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친환경 전기자전거 구입하면 보조금 드려요

광주시 남구, 66명 선정 최대 30만원 지원

광주시 남구가 친환경 전기 자전거를 구입한 사람에게 보조금을 지원한다.

남구는 올해 사업비 2000만원을 투입해 예산 소진 때까지 전기 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 1일을 기준으로 광주시 남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주민 가운데 만 19세 이상인 사람이 대상이다. 또 반드시 남구 내 자전거 판매점에서 전기 자전거를 구입해야만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최대 지원 금액은 한 대당 30만원이다.

지원 대상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

률에 따라 정부에서 정한 안전요건 기준에 적합한 자전거다.

페달링을 감지해 모터가 작동하는 PAS 방식으로 시속 25km 이상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자전거 전체 중량도 30kg 미만이어야 한다.

페달링이 필요하지 않고 100% 전기 힘으로 구동하는 스로틀 방식과 스로틀 및 PAS 겸용 방식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 또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조금 신청은 오는 16일까지며, 남구청 홈페이지 '참여세상' 내 전기 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 코너에서 할 수 있다.

남구는 오는 18일 전자 추첨을 통해 당첨자 66명과 예비당첨자 10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맨홀 추락사고 방지 '사다리' 개발

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

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가 맨홀 추락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제품(사진)을 개발했다.

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는 맨홀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추락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아이디어 제품인 '맨홀 추락방지 사다리'를 개발해 현장에 적용했다고 9일 밝혔다.

건설현장에서 맨홀은 상하수도, 전력, 통신 공사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고 깊이도 수 미터에 달해 추락사고가 발생하면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환경공단의 설명이다.

이에 공단은 추락사고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맨홀 추락방지 사다리를 자체 개발해 관내 전 현장에 확대 적용했다.

맨홀 추락방지 사다리는 3단으로 조립하는 사다리 맨홀 입구에 사다리 형태로 거치돼 안전고리를 걸고 지하로 내려갈 수 있게 하는 아이디어 제품



이다. 공단 환경시설관리처장은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건설현장에 우수한 아이디어 제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건설재해를 줄이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단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남도 전통음식·광주 대표음식 하반기 수강생 31일까지 모집

광주시 북구가 오는 31일까지 '2022년 하반기남도 전통음식·광주 대표음식' 강좌와 식(食)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강생을 모집한다.

북구는 남도 전통음식의 계승발전과 광주 대표음식의 상품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강좌를 오는 9월부터 15주 동안 운영한다고 밝혔다.

남도 전통음식 강좌는 평소 접하지 못한 전통음식인 ▲발효·저장음식 ▲향토음식 ▲떡·한과 ▲엘빙한식 ▲생활요리 등 5개 과정이며 실습 위주로 진행된다. 광주 대표음식 강좌는 주먹밥, 오리탕, 상추튀김 등 7가지 광주 대표음식 만들기 및 무형문화재와 함께하는 광주 대표음식, 푸드스타일링 등으로 이뤄진다.

식문화 프로그램은 ▲시와 음식 ▲나무와 음식 ▲노래와 음식 ▲차와 음식 등 총 10개 과정으로 음식과 문화를 결합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손해보험협회

엄마, 보고 싶어요

음주운전!
당신 자녀의 미래가 사라집니다.

만취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최고 무기징역!

2018년 윤창호법이 통과되면서 음주운전 적발 및 사고 시 처벌 수준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